



“그거 알아?
우리가 이길거야”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와의 16강전에서 후반 33분 결승골을 터뜨린 뒤 중계 카메라를 바라보며 골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UCL 8강 1차전 결승골 ... 토트넘, 맨시티에 1-0 승리
시즌 18호 새 홈구장 2경기 연속골 ... 18일 맨체스터서 2차전**

손흥민(토트넘)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유럽축구 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한 시즌 개인 최다 골 기록 경신을 향해 전진했다.
손흥민은 10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33분 0-0 균형을 깨뜨리는 결승골을 폭발했다. 이번 시즌을 통틀어 손흥민의 18호 골이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2월 14일 도르트문트(독일)

와의 16강 1차전 이후 이번 시즌 두 번째 득점이다. 이로써 2016-2017시즌 토트넘에서 총 21골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2년 만의 20골 돌파는 물론 한 시즌 개인 최다 골 경신도 가시권에 됐다. 여기에 손흥민은 유럽에서 프로 생활을 한 이후 처음으로 출전한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골을 뽑아내는 기쁨을 맛봤다.
또한, 지난 4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개장 '1호 골'을 폭발한 데 이어 새 홈 경기장에서 두 경

기 연속 골로 겹경사를 누렸다.
손흥민의 득점에 힘입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2위를 달리는 강호 맨시티를 상대로 중요한 1-0 승리를 따내며 준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두 팀의 2차전은 18일 새벽 맨체스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트넘은 최전방 원톱에 해리 케인, 2선에 델리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 손흥민을 세웠고, 맨시티는 라힘 스티어링, 세르히오 아귀에로, 리야드 마흐레즈를 공격 선봉에 내세워 맞섰다.
짧은 초반 탐색전이 지나고 전반 10분 스티어링이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페널티 지역 중앙으로 이동해 때린 오른발 슈트로 공세를 시작했다.
이 상황에 대니 로즈가 미끄러지며 불을 향해 왼팔을 들어 올린 것으로 비디오 판독(VAR) 결과 확

인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그러나 키커 아귀에로의 오른발 슈트를 토트넘 골키퍼 위고 로리스가 막아내 가슴을 쓸어내렸다.
손흥민은 전반 42분 페널티 지역 안으로 돌파하려다 스티어링에게 붙잡혀 넘어져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지만, 키커 로즈의 왼발 슈트가 에데르송 정면으로 향했다.
후반 시작하며 손흥민의 발끝은 점차 달아올랐다. 후반 3분 페널티 아크 오른쪽 강한 왼발 슈트가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고, 2분 뒤엔 페널티 지역 오른쪽 오른발 슈트가 에데르송에게 잡혔다.
후반 10분 케인이 파비안 델프와 충돌해 발목을 다치며 뛸 수 없는 악재가 덮쳐 손흥민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후반 32분엔 손흥민마저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우려를 자아냈지만 푹푹 털고 일어난 직후 손흥민의 왼발에서 짜릿한 결승포가 터졌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에릭센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거의 골라인을 넘어가기 직전의 불을 쫓아가 따낸 뒤 끌고 들어와 날카로운 왼발 슈트로 골문을 열었다. 오프사이드 가능성으로 VAR까지 진행됐으나 골은 결국 인정됐다. 일격을 당한 맨시티는 후반 막바지 리로이 자네, 케빈 디브라위너를 투입하며 만회를 노렸지만 반전은 없었다.
한편, 다른 8강 1차전에서는 지난 시즌 준우승팀 리버풀(잉글랜드)이 포르투(포르투갈)와의 홈 경기를 2-0 완승으로 장식하며 4강 진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연합뉴스

김시우 1·2R 동반자는 ‘신사’와 ‘나무늘보’

PGA 마스터스 오늘 티오프 ... 미국 커플스·홈스와 조편성

3년째 골프 명인열전 마스터스에 출전하는 김시우(23·사진)의 1, 2라운드 동반 선수는 노장 프레드 커플스(미국)와 J.B. 홈스(미국)로 정해졌다. 대회본부가 10일 발표한 1, 2라운드 조편성을 보면 김시우는 커플스, 홈스와 함께 11일 밤 10시 25분 티오프한다.
‘필드의 신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커플스는 올해 60세의 노장이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통산 15승을 올렸고 1992년 마스터스를 제패해 평생 출전권을 지녔다.
마스터스에 34회째 출전하는 커플스는 11차례나 톱10에 입상하는 등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구석구석 꿰뚫고 있다.
PGA투어 통산 5승을 올린 홈스는 이번이 마스터스에 5번째 출전이다. 2016년에 공동4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제네시스오픈 우승 때 지나친 슬로 플레이를 펼쳐 ‘나무늘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었다.
마스터스 5번째 우승과 15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노리는 타이거 우즈(미국)는 온 람(스페인), 리하오통(중국)과 함께 12일 0시4분에 티샷을 날린다.
커리어 그랜드 슬램에 도전하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리키 파울러(미국), 그리고 호주 출신에 캐머런 스미스와 12일 0시15분 경기를 시작한다.
세계랭킹 2위 더스틴 존슨(미국)은 ‘필드의 과학자’ 브라이언 디샘보(미국), 전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와 이틀 동안 경기를 치른다. 이들은 12일 오전 2시38분에 티오프한다.
필 미켈슨(미국)은 두명의 저스틴, 저스틴 로즈(잉글랜드)와 저스틴 토머스(미국)를 1, 2라운드 동반 선수로 만났다. 셋은 12일 오전 2시49분 경기에 나선다. /연합뉴스



한국 수구, 세르비아·몬테네그로·그리스와 A조

광주세계수영대회 조 추첨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6개 종목 중 하나인 수구 경기에 대한 조 추첨 행사가 열렸다.
10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유럽 크로아티아의 수도 제그레브 국립극장에서 광주수영대회에서 펼쳐질 수구 경기의 조 추첨 행사가 열렸다.
국제수영연맹(FINA) 임원진과 세계수구 기술위원회, 각국 수구 참가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본선 경기를 치를 남아 각각 16개 팀, 4개 조를 확정했다.
이번 조 추첨에서 우리나라 남자팀은 세르비아·몬테네그로·그리스 등과 함께 A조에, 여자팀은 캐나다·헝가리·러시아와 함께 B조에 각각 편성됐다.
수구 경기는 유럽이 강세를 보이는 인기 종목이다. 그중 남자 수구는 헝가리와 이탈리아가 가장 많은 메달을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 공식종목으로

채택된 여자 수구는 미국과 호주가 세계 최강급이다.
올해 선수권대회 수구 경기는 7월 13일부터 7월 27일까지 14일간 남부대학교에 임시로 만들어진 수구 경기장에서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 추첨 결과
◇남자
▲A조 : 세르비아, 한국, 몬테네그로, 그리스
▲B조 : 미국, 크로아티아, 카자흐스탄, 호주
▲C조 :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스페인, 헝가리
▲D조 :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일본
◇여자
▲A조 :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미국
▲B조 : 캐나다, 헝가리, 러시아, 한국
▲C조 : 쿠바, 그리스, 카자흐스탄, 스페인
▲D조 : 일본, 이탈리아, 중국, 호주